

외로움과 관계단절로부터 야기되는 자살은 고독사로 지정될 수 있는가 ?:

고독사의 개념과 대상에 관한 새로운 정립을 중심으로

이은영*

【요약】

필자는 본 글에서 고독사의 원인을 고령화 문제보다는 소외된 ‘관계의 단절’로부터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렇다면 관계의 단절로부터 발생되는 자살은 고독사로 지정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본 연구에서 두 가지 문제를 언급 한다. 한편으로는 고독한 죽음으로 나타나는 고독사의 문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독사 원인들 중 자살로 인한 그것의 문제이다. 필자는 우선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첫째, 고독사 정의와 대상의 확장성 문제, 둘째, 자살로 인한 고독사 문제) 언급하면서 출발한다. 그 과정에서 본 연구의 고독사 개념과 대상 범주를 지정함으로써 고독사의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개념과 정의에 있어서 차별성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고독사 원인과 특징을 논의하며, 그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여 알아본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고독사의 원인이 ‘관계의 단절과 소외 문제’로부터 야기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관계의 단절과 외로움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고독사와 그것에 방치된 사람들이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출해낸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필자는 첫째, 고독사 정의에 새로운 지평을(단순한 자살은 고독사에 포함시킬 수 없으나, 1인가구의 형태에서 관계의 단절과 소외로부터 야기되는 우울감등으로 자살하는 경우는 고독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우리나라 고독사 현상의 문제점을 관계의 단절과 소외 문제로부터 파악하고 공감과 그것의 공동체의식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논의하는 데 또 하나의 목표가 있다.

【주제어】 고독사, 관계단절, 외로움, 공감, 고독사에서 자살

*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I. 문제 제기 : 외로움과 관계단절로부터 야기되는 자살은 고독사로 지정될 수 있는가

<현재 대한민국은 얼마나 고독한가?> 국내 심리학자들이 한국인의 고독 지수를 ‘상당한 고독감’에 해당하는 78점으로 평가했다. 고독감의 증가원인으로는 개인주의 심화, 사회계층간 대립 심화, 장기화된 경제 불황, 온라인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등이 제시되었다.¹⁾ 특히 거대한 정보기술은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타인과 소통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고립과 관계단절을 경험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 고독한 감정이 우울증, 자살, 고독사, 혐오범죄 등으로 발현된다고 강조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독감은 다양한 정신적,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고독감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정신적, 사회적 문제와 어느 정도 관계 되는가’라는 물음에 83점으로 ‘아주 관계있다’는 답변이 그 방증이다. 무한 경쟁과 기술 발전으로 급격히 감소한 대인관계의 상호작용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나’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강하게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결국은 고립된 상황이 고독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독감은 인간 실존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지만,²⁾ 인간에게 우울 혹은 불안과 같은 정서를 증가시키는 부정적 정서이기도 하다. 이를 인간이 적절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정신적,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특히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적극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갖게 되며 동시에 수면장애, 약물복용, 자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³⁾ 이러한 현상

1) 임웅재, 「대한민국 고독지수 78점...」, 『서울경제』 2018년 04월 02일.

2) 릴케는 시 창작의 원천을 ‘고독’에서 찾았으며, 자신의 시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핵심어로서 본질적 존재에 다가가는 실존적 원리로 수용하였다. 김주연 (1987), pp. 13-17.

중에서 필자는 자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⁴⁾ 이러한 자살률 증가의 요인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유대감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자살을 하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 형태가 좌절된 소속감이며, 이 소속감이 좌절되었을 때 부정적 정서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결국 자살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⁵⁾ 여기에서 좌절된 소속감이란, 가족 구성원, 친구들,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더 이상 의미 있는 존재로 인정되지 못하거나 또는 더 이상 자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님을 느낄 때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관계의 단절과 고립, 그리고 외로움이 자살 유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⁶⁾

그렇다면 외로움과 관계의 단절로부터 야기되는 자살은 고독한 죽음, 즉 고독사로 지정될 수 있는가. 1인 가구 형태에서 관계의 단절과 사회적 고립, 우울감 등이기 원인이 되어 자살로 이어졌다면 고독사 범주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고독사의 정확한 통계가 없기에 무연고 사망자로 고독사 통계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3) 최현영 외 (2016), pp. 78-79.

4) 이양현, 「12년째 OECD 자살률 1위..하루 44명꼴」, 『YTN』 2017년 08월 03일.

5) 김보미, 유성은 (2012), p. 733.

6) 경찰청에서 조사한 2016년 자살 동기 비율을 보면, 정신과적 질병문제(36.2%), 경제생활문제(23.4%), 육체적 질병문제(21.3%), 가정문제(8.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자살 동기 배경에는 물질만능주의와 학력지상주의, 실업, 대학진학과 취업을 위한 무한경쟁에서 오는 관계적 박탈감 내지는 외로움이 제시되고 있다. 이상명 (2016), pp. 38-39. 그런 한에서 필자는 관계적 박탈감 내지는 외로움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살이 단순한 자살로 규명되는 것이 아니라 고독사로 지정될 수 있는가에 문제의식을 갖고 본 글을 규명하고자 한다.

7) 2005년에 발표된 <자살예방 5개년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은 당시 한국의 자살률 관련 현황을 검토하면서 자살에 영향을 주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 내용에 의하면, 자살은 생물심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유발되는데, 이 두 요인 중 80%가 우울증을 거쳐 자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양보람 (2013), pp. 59-61.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본 연구에서 두 가지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한편으로는 고독한 죽음으로 나타나는 고독사의 문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독사 원인들 중 자살로 인한 고독사의 문제이다. 필자는 우선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첫째, 고독사 정의와 대상의 확장성 문제, 둘째, 자살로 인한 고독사 문제) 언급하면서 출발한다. 그 과정에서 본 연구의 고독사 개념과 대상 범주를 지정함으로써 지금까지 연구된 고독사의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개념과 정의에 있어서 차별성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고독사 원인과 특징을 논의하며, 우리나라의 고독사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여 알아본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고독사의 원인이 무엇보다 ‘관계의 단절과 소외 문제’로부터 야기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관계의 단절과 외로움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고독사와 그것에 방치된 사람들이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출해낸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필자는 첫째, 고독사 정의에 새로운 지평을(단순한 자살은 고독사에 포함시킬 수 없으나, 1인가구의 형태에서 관계적 박탈감 또는 관계의 단절과 결핍, 소외로부터 야기되는 우울감등으로 자살하는 경우는 고독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우리나라 고독사 현상의 문제점을 관계의 단절과 소외 문제로부터 파악하고 공감과 그것의 공동체의식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논의하는 데 또 하나의 목표가 있다.

II. 고독과 죽음

고독이란 즐길 수 있는 감정인가. 감정의 한 유형인 고독孤獨은 사전적 의미로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함’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혼자 있는 고통을 의미하는’ 외로움과 ‘스스로 선택한 긍정적 혼자됨의 즐거움’을 구분하여 후자를 고독으로 정의한

다.⁸⁾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오늘날 소외 현상을 다양하게 논의하는데, 우선 고립isolation은 인간이 세계 질서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며, 외로움 loneliness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다. 그런데 고독solitude은 홀로 된다는 것이지만, 홀로 있음으로써 내가 다른 또 하나의 나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 즉 나라는 존재에서 ‘하나 안의 둘’임을 의미한다. 아렌트가 ‘나’라는 존재에서 ‘하나 안의 둘’로 분리하여 활동하는 존재를 고독으로 규정하며, 나 자신이 내 안의 다른 나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존재임을 말한다. 따라서 고독은 나 자신과 만나는 필수적 조건이다. 그런 한에서 우리는 철저히 고독해야 한다는 것이다.⁹⁾(고독 속에서 나는 내 자신과 만날 수 있으며, 나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고독은 학문적 고찰이나 의미 부여로 우리 사회에서는 낯설지 않은 감정이 되었다.

그런데 이 고독이 죽음과 관련되어 우리 사회에서 고독사孤獨死의 문제가 화두로 등장되고 있다. 고독사에서 언급되는 고독은 학문적 고찰에서 감지되는 그것과는 달리 매우 부정적 의미로 다가온다. 즉 한 개인이 지나는 친밀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기대보다 부족한 상태일 때 나타날 수 있는 감정으로 수용된다. 그런 한에서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일 수 있다는 것이다.¹⁰⁾ 인지이론에 의하면, 고독감은 기대한 것과 달리 실제적인 사회관계에서의 차이, 그리고 최적의 사회관계와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관계의 인식적 차이로 규정된다. 따라서 고독이라는 감정은 한 개인이 원하거나 기대하는 바를 사회적 관계에서 차이와 결핍으로 나타날 때 느낀다는 것이다. 반면에 바이스는 인간이 상호교류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고독감을 느낀다고 주장하며, 정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고독감을 구분한다. 그에 의하면, 성인은 배우자와의 결별로 인한 분리 스트레스를 경험함으로써 불안과 두려움과 같은 정서적 고독을

8) 폴 틸리히, 차성구 역 (2006), p. 547.

9) 한나 아렌트, 홍원표 역 (2004), p. 287 ; 천명주 (2013), p. 399.

10) 장수지, 김수영 (2014), p. 33.

느낀다. 반면에 사회적 고독은 사회적 관계망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족과 친한 주변인의 부재 또는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으로써 권태감과 박탈감 그리고 소속 사회에서 주변인이라는 느낌으로 수용된다는 것이다.¹¹⁾ 또한 고독감의 시간적 차원에 대한 분류도 있다. 일시적 고독감은 일시적으로 환경 변화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극복하기 쉽다. 반면에 만성적 고독감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발생하는 감정으로 극복되기 어렵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가족, 친구 그리고 주변인과 교류하면서 고독감을 느낀다면 만성적 고독감이며, 이것은 주변인과 환경을 변화시킨다 해도 고독감을 감소시키기 어렵다.¹²⁾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고독은 현대인의 인간관계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고독이 인간 개개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재 상태 혹은 결핍상태를 일컫는 부정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글에서 고독사로 제시되고 있는 고독은 텔리히에 의하면, 혼자 있는 고통을 의미하는 외로움, 그리고 아렌트에게서는 고립 내지는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느끼는 외로움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필자는 외로움이나 고립의 의미로서 고독한 감정이 죽음과 연관되고 나타나는 사회 현상을 고독사로 규정한다. 이 고독사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아직 정확한 통계로 밝혀진 바 없다. 일반적으로 고독사 발생 건수는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바탕으로 추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요시다 다이치吉田太一の 책 『유품정리인은 보았다』에 의하면, ‘고독사는 혼자 사는 노인이나 환자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11) 감정적 고독은 친밀한 동반자의 부재로 설명될 수 있는데, 동반자와 일시적으로 떨어졌을 때 잠시 나타나는 감정이거나 또는 사별한 경우는 오랜 시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고통스러운 이별 후 찾아오는 감정이기도 하다. 반면에 사회적 고독은 권태감에서 온다. 사회적 고독 상태에 놓인 사람은 인생의 목표도 없고 무엇인가 실현할 의지도 없다. 이러한 사회적 고독 원인으로는 사회생활에 대한 참여 부족, 타인과 만나고 싶다는 의욕 결핍, 불만과 좌절 속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향을 보인다. 허준수 (2011), pp. 104-105.

12) 허준수 (2011), p. 105.

사는 집안에서 돌연사하거나 사망 후 오랫동안 발견되지 못하는 죽음'으로 정의된다.¹³⁾ 우리나라 역시 고독사와 관련된 연구는 그 사회적 이슈의 강도를 생각해 볼 때 아직 부족하다. 공식적인 고독사 통계 수치도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고령화 사회와 경기침체에 따른 빈곤, 열악한 건강 문제, 그리고 사회적 소외 현상에 주목하여 이를 인권의 실천적 기반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그것의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¹⁴⁾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가 원인일 것이다. 고령화는¹⁵⁾ 1인 가구 증가의 직접적 원인으로 인식되며 따라서 고독사와 자살률 증가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독사의 개념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

13) 요시다 다이치가 유품정리전문회사 '키퍼스Keepers'를 운영하면서 1000명 이상의 고독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유품을 정리하며 체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썼다. 그에 의하면 '어느 비오는 밤, 사망 20일이 지난 후 발견된 고독사한 이의 유품을 정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달려간다. 굳게 마음을 먹고 현장으로 향했지만 수 천 마리의 구더기가 꿈틀거리는 역겨운 광경은 잠시 맥이 빠질 정도의 심각한 상황 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직접 경험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도 언급한다. '약 30%정도 집에는 에어컨이 없었고, 약 10%의 집에는 전화가 없었다. 도시의 외판섬이다. 그리고 고독사한 독거노인의 연령이 70세 이상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55세부터 65세 사이의 독거노인이 고독사한 경우가 많다. 이들의 직접적 사망원인이 병일 수 있으나 열악한 환경이 죽음을 앞당겼다고' 강조하고 있다. 요시다 다이치, 김석중 역 (2009), pp. 1-200.

14) 김혜성 (2014), p. 77 ; 권혁남 (2013), pp. 245-277 ; 권미형 외 (2012), pp. 647-658.

15)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노인인구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고, 2014년 고령(65세이상) 비율이 13%, 2017년 기준 국내 총 인구 5145만 명중 65세 이상 인구는 70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함으로써 이미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12년 후에는 20%에 이른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2060년대가 되면 총 인구는 4525만 명이 되며, 그 중 65세 이상 인구는 185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가 고령자인 초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가현 (2013), pp. 161-162.

Ⅲ. 고독사의 개념 이해

1. 고독사 대상의 확장성

우리나라의 고독사 관련 연구는 고령화 사회와 경기침체에 따른 빈곤, 열악한 건강 문제, 그리고 사회적 소외 현상에 주목하여 이를 인권의 실천적 기반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논의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들 연구의 쟁점은 주로 노인 고독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예컨대, 중년과 노인 여가활동과 고독감에 대한 연구¹⁶⁾, 여성노인의 고독감에 대한 연구¹⁷⁾ 등이 있다. 그리고 노인 고독사 문제가 주로 어떤 논점에서 제시되고 있는가, 즉 그 전개방식에 의해서 구분되기도 한다. 예컨대, 고령화에 의한 노인 문제를 통해 고독사를 고찰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특히 윤리적 관점에서 ‘효’를 통한 인간관계의 친밀성을 언급하고 있거나,¹⁸⁾ 또한 법적인 관점에서 고독사가 언급되는 글은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와 노인의 권리와와의 충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과 연관되어 언급되고 있다.¹⁹⁾ 지금까지 언급된 고독사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고독사 문제가 처음으로 언급되었던 일본에 관한 사회적 연구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고독사 비교 연구,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적 접근, 노인 고독사 문제에 대한 윤리적 고찰 등이 있다.

그러나 청, 장년층으로 범위를 확장시켜 고독사 문제가 밀도 있게 논의되었던 연구는 발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는 선행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차별성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고독사

16) 송지준, 엄인숙 (2008), pp. 43-62.

17) 김미령 (2005), pp. 90-111.

18) 권혁남 (2013), pp. 245-277.

19) 이상명 (2016), pp. 59-87.

대상의 확장성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고독사는 주로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고독사의 대상을 노인층에만 집중시키지 않고 중, 장년층의 남성과 청년층까지 포함된 ‘1인 가구’에 방점을 두며 그 범주를 확장시켜 고찰하는데 있다. 둘째, 자살로 인한 고독사이다. 일반적으로 자살의 경우 종교적 문제나 또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고독사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물론 단순한 자살은 고독사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하지만 1인 가구 형태에서 관계의 단절, 결핍과 사회적 고립, 우울감등이 원인이 되어 자살로 이어졌다면 고독사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미 2016년 경찰청 통계에서도 물질만능주의와 학력지상주의, 실업, 대학진학과 취업을 위한 무한경쟁에서 오는 관계적 박탈감 내지는 외로움이 청년층과 중, 장년층 자살의 주요 동기로 제시되고 있다.²⁰⁾ 만일 이러하다면 관계적 박탈감과 결핍에서 야기되는 자살은 고독사 통계에도 활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필자의 견해대로 규정된다면, 기존 고독사 개념과(‘공간적으로 홀로’ 거주하는 사람의 사망) 함께 관계단절로 인한 소외로 야기되는 ‘관계적인 홀로’(물론 1인가구 형태로 거주한다는 전제된다)인 사람이 지속적인 우울함과 희망 없음으로 자살을 선택할 경우도 고독사로 규정될 수 있다.

2. 고독사 정의와 개념 이해

국내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독사가 법적, 정책적으로 개념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도 없다.²¹⁾ 다만 국회에서 고독사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2017년 10월 <고독사 예방법>(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었

20) 이상명 (2016), pp. 38-39.

21) 김혜성 (2014), pp. 77-78.

다. 이 고독사예방법은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주기적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발생 원인과 현황 등을 파악해 예방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또한 주기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을 의무화했다. 청년층, 중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예방 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사후관리 체계의 구축, 1인 가구 현황 파악 및 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고독사 예방법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고독사의 명확한 의미가 규정되어야 한다.

고독사 정의는 ‘고독사의 대상, 1인가구, 시신 방치 기간, 사회 교류 유무, 경제적 소외, 질병 및 자살 포함 여부’ 등과 연관된다. 우선 고독사의 대상을 살펴보면, 독거노인으로 규정되지 않고 1인가구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확대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고독사는 독거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홀로 거주하는 1인가구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사 대상도 노인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시신 방치 기간의 경우 우리나라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 후後’라는 의미에서 정확히 사후死後 어느 시점을 지정하는지 통일된 규정이 없다. 계절과 변사처의 온도, 습도 등 주변 환경에 따라서 사후 추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단순한 자살의 경우 고독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홀로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원인으로 자살하는 경우라면 고독사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고독사 정의는 다양하게 개진되고 있지만 현재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의되어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²²⁾

그럼에도 통상적으로 ‘홀로 사는 사람이 홀로 죽음을 맞은 뒤, 시간이 지나서 발견된 것’을 뜻하는데, 이것은 학계의 잠정적 합의이다.²³⁾ 이 고독사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무연고 사망자와 독거사, 고립사를 들 수 있다.

22) 강기철 외 (2017), pp. 6-7.

23) 정준호, 「홀로 맞는 죽음 5년 새 78% 급증」, 『한국일보』 2017년 07월 23일.

무연고 사망자란,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주검 인수를 거부해 지방자치 단체가 장례와 유품정리 등을 대행한 경우를 뜻한다. 독거사는 홀로 맞이한 죽음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고립사는 고독사 현상이 우리보다 먼저 제기되었던 일본에서 고독사와 병행하여 그것의 의미가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혼자 생활하지 않아도 고령자 부부만의 세대나 간호가 필요한 고령자 세대 그리고 중년 독신남성이 사는 세대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로 그 의미가 사용되고 있다.²⁴⁾ 따라서 무연고 사망자 또는 무연사無緣死 그리고 고립사孤立死, 독거사獨居死 등은 고독사와 유사한 개념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들 개념은 모두 관계 단절을 경험하면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렇다면 1인가구 형태에서 관계의 단절과 외로움 그리고 소외 등으로 자살로 삶을 마무리했다면, 그것은 고독사로 규정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고독사 개념은 ‘홀로 거주하는 1인가구’와 ‘홀로 맞이하는 죽음’이 강조됨으로써 규정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간적인 측면에서 홀로’가 강조됨으로써 고독사로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독사의 문제점을 좀 더 고민해보면, 단순히 홀로 거주한다는 공간적 측면보다는 그들이 관계의 단절과 결핍 소외로부터 야기되는 ‘관계적 측면에서 홀로’라는 점에 있다. 그런 한에서 단순한 자살은 고독사로 규정될 수 없으나, 1인가구 형태에서 관계 단절과 소외로부터 자살로 이어졌다면 고독사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고독사 발생 원인은 무엇으로 규정될 수 있는가.

24) 권혁남 (2013), pp. 248-249.

IV. 고독사 원인과 유형

1. 고독사의 원인

근래 우리나라에서 고독사는 낯선 용어가 아니다.²⁵⁾ 2013년 부산의 한 할머니가 사망 5년 후 백골이 된 시체가 발견되었거나²⁶⁾, 또는 한 때 유명했던 연예인이 사망 후 시간이 경과되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통해 우리는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의 상황을 접하고 있다. 이러한 고독사 증가의 원인으로 는 **첫째, ‘1인가구의 증가 현상’이다.** 1인가구Single Person Household는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고독사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 1인가구이다. 1인가구는 2010년 23.88%로 증가하였고, 2020(29.6%), 2030(32.7%)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통계청의 보고가 있었다.²⁷⁾ 서울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또한 2015년에 27%에 이르며, 30년 전인 1980년대와(4.8%) 비교했을 때 10배 늘어난 상황이다. 서울시 고독사 연구에 의하면,²⁸⁾ 2013년 고독사 확실 사례 162명의 주거 현황은 다세대주택(34.5%), 임대아파트(17.9%), 고시원(8.0%), 빌라(5.5%), 원룸(5.5%) 순 이었다. 그렇다면 짧은 기간 동안 1인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한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1인가구의 증가는 핵가족화를 넘어서 가족 관계의 단절이나 가족 해체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부모와 자녀로

25) 고독사를 ‘통계 없는 죽음’이라 부르는 이유이다. 정부가 심장질환 등 사망 원인 별로 사망자 통계를 잡지만 의료적으로 ‘고독’은 사인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계가 없는 만큼 고독사의 정확한 개념도 정의되지 않고 있다.

26) 하근찬, 「백골로 발견된 할머니...무관심 속 5년간 방치」, 『CBS노컷뉴스』, 2013년 10월 02일.

27) 김혜성 (2014), p. 78.

28) “서울시복지재단”, <http://www.welfare.seoul.kr/main>.

구성된 전통적인 가치관의 상실로 인한 가족 해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젊은 세대의 비혼(非婚)과 만혼의 증가, 경제적 빈곤과 청년 실업, 고령화로 인한 노인 1인가구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²⁹⁾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1인가구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완전’, 또는 ‘비정상’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1인가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인가구의 문제는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이 아니며, 혼자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결정을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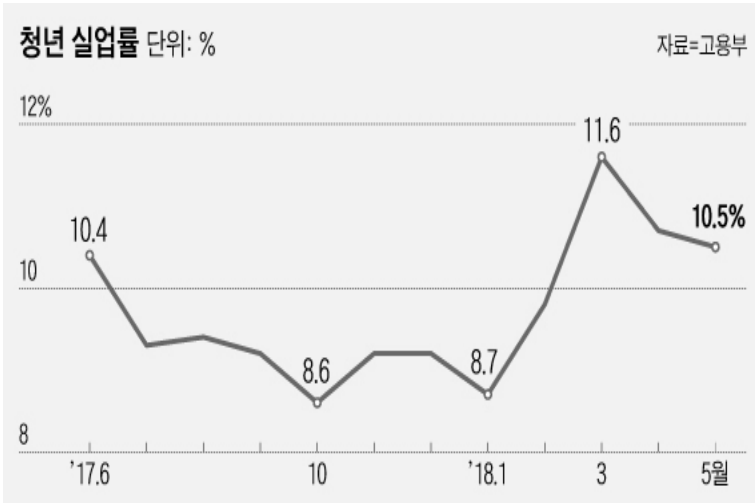
둘째, ‘청년실업과 경제적 빈곤’이다. 1인가구는 여러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데, 20-30대 초반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 1인가구, 40-50대의 불안한 독신자가구, 고령자 1인가구 그리고 전문직종에 종사하면서 독신의 삶을 누리는 ‘골드족’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 형태에서 비자발적 1인가구라 할 수 있는 불안한 독신자가구, 청년 1인가구, 고령자 1인가구의 공통 문제는 경제적 빈곤과 실업에 있다.³¹⁾ 무엇보다도 15세-29세 청년 실업률이 10.5%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표 1참조> 이들의 공통점은 노인 1인가구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거의 없는 빈곤층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데 있다. 그런 한에서 1인가구가 생전에 빈곤 문제를 겪다 사망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들이 바로 고독사의 문제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29) 김화진 외 (2015), p. 2.

30) 장민선 (2016), pp. 460-461.

31) 1인가구는 빈곤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 2010년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취업률은 약 61.1%로서 30대와 40대 취업률이 가장 높다. 그러나 1인가구 평균소득을 살펴보면, 1인가구의 49.9%는 월평균 소득 93만원 미만으로 조사되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최저소득계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월평균 소득이 179만원 이하 비율이 누적비율 78.7%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가 대부분이라는 연구를 통해 1인가구의 빈곤 문제를 알 수 있다.

변미리 (2014), pp. 71-77 ; “서울특별시 1인가구 대책 정책연구”,
<https://www.si.re.kr/node/52405>.



[표-1] 청년 실업률

“출처: 고용노동부 e행정실, http://eboard.moel.go.kr/indicator/detail?menu_idx=2.”

셋째, 고독사의 가장 결정적 이유일 수 있는 ‘외로움과 관계의 단절’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결핍된 채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가족과의 관계단절, 사회적 관계단절과 결핍이 고독사의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것의 유발요인으로 이혼, 사별, 경제적 문제, 제한된 인간관계, 지역사회 참여부족, 장애 및 건강문제 등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더 문제되는 부분은 여러 유발요인들이 사회적 고립의 원인이 됨으로써 더 악화된 건강과 삶의 질을 경험하게 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서 고독사 유발요인들과 사회적 고립의 악순환의 발생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됨으로써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는 노년층의 고독사와는 조금 상이하게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늘날 고독사는 더 이상 독거노인층의 문제만이 아니다.³²⁾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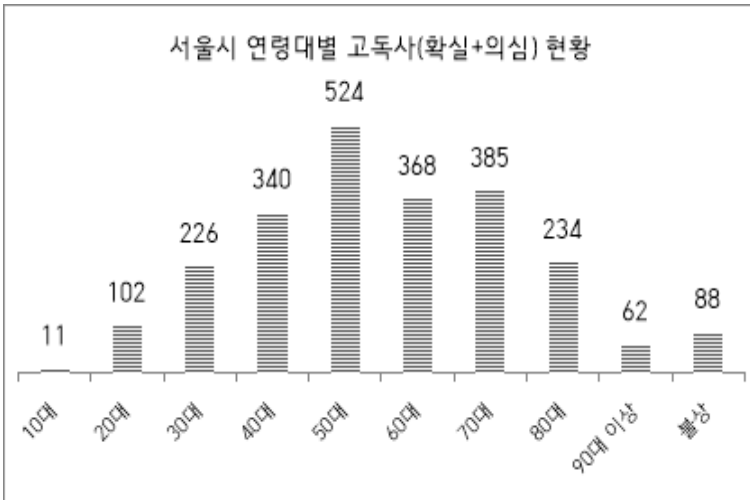
32) 김혜성 (2014), p. 77.

배경 하에 필자는 고독사를 처음 논의한 일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40-50대 장년층의 고독사를 첫 번째 유형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청년층의 그것을, 노인층의 고독사를 세 번째 유형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고독사 유형

(1) 은퇴와 가족 단절로 인한 중, 장년층의 고독사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실시한 한국의 고독사 실태 조사에 의하면, ‘일본관 계자들이 한국의 고독사가 40-50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데 놀랐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은퇴한 65세 이상 노인층을 중심으로 주로 고독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본의 고독사 발생 수는 1999년 207건에서 2008년 613건으로 10년간 3배 늘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층의 고독사는 94건에서 426건으로 4배 넘게 늘었다. 즉 일본의 그것은 노인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한국 50대인 장년층의 고독사 경향은 지원 단체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고독사 유품정리와 장례를 지원하는 <나눔과나눔>은 <마포희망나눔>과 연계해 64세 이상과 이하 주민과 관계 맺기 캠페인을 실행했다. 그 과정에서 선정된 50대 남성 3명은 관계 맺기를 거부했다. 그 이유는 아직 도움 받을 때가 아니며, 내가 왜? 라는 이유이다. <나눔과나눔>은 오히려 중, 장년층의 홀로 거주하는 남성보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상대적으로 접촉이 용이함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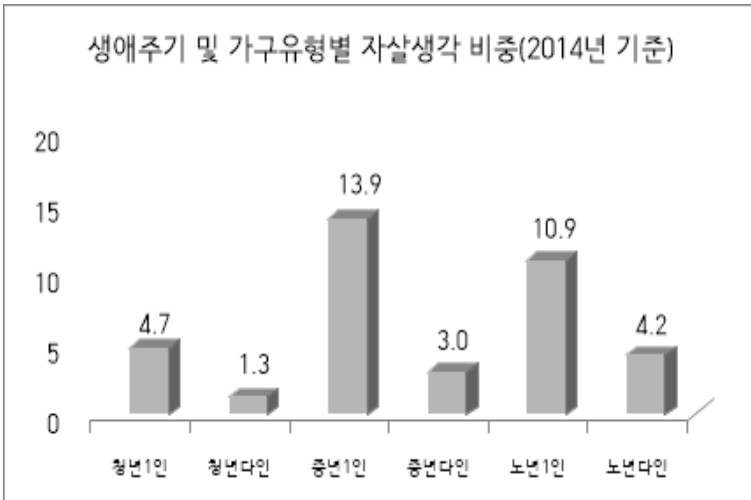


(단위: 건, 2013년 기준)

[표-2] 서울시 고독사 확실사례 연령별 분포도 2013

“출처: 서울시복지재단, <http://www.welfare.seoul.kr/main>.”

위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시 복지재단이 2016년 12월 발표한 ‘서울시 고독사 실태 파악 및 지원 방안 연구’를 보면 2013년에 발생한 고독사 확실 사례 162건 가운데 50대가 58명으로 연령대별 비중(35.8%)가장 높았다. 이어 40대가 34명(21%), 60대가 32명(20%)으로 조사되었다. 고독사로 의심되는 사례 2181건을 더해도 50대는 524명으로 70대보다 6% 높았다. 고독사 확실 사례 162건의 절대다수(84.57%)가 남성인 점을 고려하면, 고독사는 특히 ‘50대 남성의 위기’로 집중된다. 무연고사망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를 돕는 비영리 나눔 단체 <나눔과나눔>이 지난 해 장례절차를 도운 288건 가운데서도 50대 남성이 84명으로 가장 많았다.



(단위: %)

[표-3] 생애주기 및 가구유형별 자살생각 비중

“출처: 서울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9차) 원자료 재분석,
<https://www.kihasa.re.kr>.”

그렇다면 50대 남성이 우리 사회의 고독사에서 가장 높은 원인은 무엇인가. 이 현상은 퇴직연령이 낮고 복지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우리사회에서 조기퇴직과 가족 해체 등으로 ‘고독사 위험군’이 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은퇴한 한국 남성들은 경제력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상실한다고 생각해 사회적으로 쉽게 고립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과 달리 40-50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이상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실직, 파산한 40-50대가 지병이 있는데도 술을 많이 마시며 혼자 살 경우 고독사 할 확률이 높게 측정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중, 장년층의 1인가구는 더 이상의 ‘희망 없음’으로 인한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³³⁾

고독사 현장에서 죽음의 흔적을 마주하는 하드웍스(고독사청소업체) 대표는 사망 현장에 가면 우울증 처방전과 술병을 자주 보게 된다고 하며 특히 50대 이하 사망자의 마지막 자리를 청소할 땐 구직 이력서가 종종 나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50대는 노인 빈곤이 시작되는 관문이며, 은퇴한 뒤 빈곤에 노출되면서 알코올 의존, 질병으로 사망하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50대의 경제적 갈등과 가족 단절이 이들 고독사의 주요 원인이지만, 직접적 원인은 관계단절로 인한 소외감과 우울감이다. 그리고 이 우울감이 자살로 이어짐으로써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고독사는 더 이상 독거노인의 문제로 규정될 수 없으며, 또한 1인가구 형태에서 관계단절로부터 야기되는 자살 역시 고독사에 포함시켜야 함을 필자는 주장하고자 한다.

(2) 청년실업과 빈곤으로 인한 청년 고독사

우리가 20대를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기란 어려운 일이다. 7포 세대라는 말은 청년층의 현실을 잘 반영해 주는 단어이다.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구입, 꿈, 희망을 포기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N포 세대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대학생활은 졸업을 늦춰서라도 재학 중 취업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4년이 아니고 5년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며, ‘함께’, ‘더불어’와는 거리가 먼 혼족(나홀로족), 혼밥족(혼자 밥먹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문탐구라는 대학 본연의 임무보다 취업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전락해 버린 대학생활을 통해 청년층은 인간과 인간의 연결이나 마음과 마음의 연결보다 오히려 고독과 외로움, 소외와 경쟁을 선택한다. 협동이 더 많은 이익을 내놓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조차 기꺼이 경쟁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20대 청년층의 문제는 고독사 자체에 있기 보다는 자살로 이어지는 죽음에 있다는 것이다. 2013년 20대 사망자 분포에서 자살이 51.6%가 자살로 사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한 연구에 의하면, 20대의 취업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적대감과 같이 정신건강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자살생각, 자살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³⁴⁾ 20대 취업집단과 미취업집단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미취업 집단에서 우울감과 적대감 그리고 자살생각이나 행동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³⁵⁾ 다시 말해서 청년층의 취업실패가 자살의 직접적 원인은 될 수 없지만, 취업 실패로 발생하는 우울과 불안감 등이 자살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실업층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이어지면서 자살을 통한 고독사 위험군으로 거론된다고 볼 수 있다.³⁶⁾ 따라서 20대 청년층 대부분의 고독사 원인은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다. 즉 독립생활을 위해 원룸이나 고시텔에서 생활하다 경험하는 취업난 문제, 생활고의 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적 체념의 문제이다. 이 문제들로 고통 받다가 홀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청년 고독사 역시 중, 장년층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청년 실업이 장기화 등이 자살로 삶을 마무리하는 우리사회에서 우울감과 관계적 결핍 그리고 희망없음은 정신건강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상당한 스트레스와 압박이 우울감으로 이어지면서 자살에 이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³⁷⁾ 강석화, 나동석에 의하면, 우울은 열등감과 슬픔 등의 주요 증상을 동반하며, 일상생활에서 전혀 행복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며 무력감에 빠져 자살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³⁸⁾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 고독사 역시 빈곤 문제와 사회적 연계의 취약성 문제로 인한 정신 건강문제까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그런 한에서 본 글에서 언급된

34) 윤우석(2016), p. 96.

35) 윤우석(2016), p. 96-97.

36) 김혜성(2014), p. 82.

37) 윤우석 (2016), p. 96.

38) 강석화 외 (2013), p.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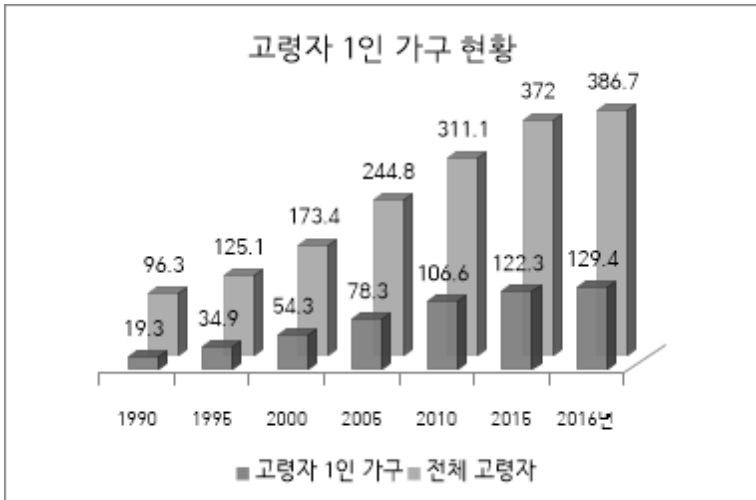
첫 번째 고독사 유형인 중, 장년층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청년층의 고독사 역시 과도한 경쟁과 고용 불안이나 관계적 박탈감에 의한 관계단절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견해대로라면 고독사는 이제 ‘홀로 거주하다 사망한 후 발견’된 독거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청년층 1인가구 형태에서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도 고독사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3) 독거노인 고독사

노인 인구 증가가 고령화 사회라는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으나, 이와 함께 제기되는 큰 문제는 독거노인의 증가이다.³⁹⁾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표 4 참조> 2017년 고령자 통계를 발표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셋 중 하나는 혼자 사는 1인가구, 즉 독거노인 이었다. 독거노인 비율은 농어촌지역, 여성노인, 70대 후반에서 높았으며 교육수준과 독거노인의 비율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⁰⁾

39)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독거노인은 주로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이나, 이들은 대부분 무연고이지 않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노인은 자녀를 독립시킨 후 배우자와 함께 살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독거노인이 되거나 무배우 상태에서 자녀가 독립함으로써 혼자 살게 되는 경우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2013년 1280명, 2014년 1389명, 2015년 1679명, 2016년 183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그 중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는 2013년 464명, 2014년 538명, 2015년 661명, 2016년 746명이었다가 지난 해 2017년은 835명까지 증가하였고 4년간 증가율은 80%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 무연고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 무연고 사망 통계는 그동안 고독사 발생을 추정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무연고 사망자 통계에서 삭제함으로써 총 비율은 훨씬 더 높다고 하겠다. 김범수, 「최근 4년간 무연고 사망자 57% 증가...고독사 대책 마련 시급」, 『조선비즈』 2018년 02월 18일.

40) 고재욱 외 (2011), p. 31.



(단위: 만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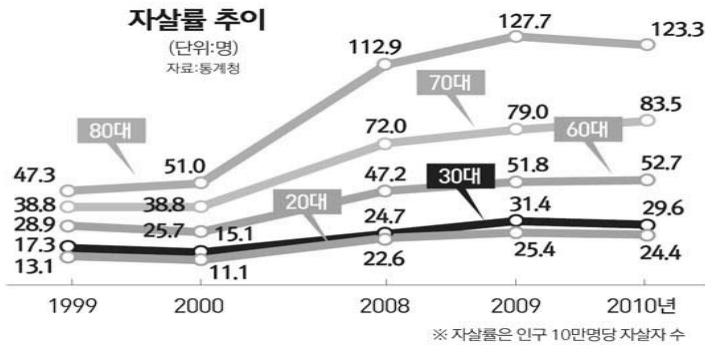
[표-4] 고령자 1인 가구 현황

“출처: 통계청, <http://kosis.kr/index/index.do>.”

그렇다면 독거노인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필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관계의 단절과 소외 등으로 인한 사회적 유대감 상실이다. 특히 독거노인은 노인부부가구나 가족동거인에 비하여 사회적 자원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주변 환경으로부터 고립되기 쉽다.⁴¹⁾ 독거노인의 일정 부분은 자녀와의 접촉도가 낮았으며, 친한 동료가 적었으며 단체 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독거노인은 비독거노인과 비교했을 때 관계의 단절과 소외 등으로 사회적 유대감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경제적 빈곤이다. 독거노인 3명중 2명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어 노인 빈곤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노년기는 육체적 변화, 사회적 역할 상실, 고독과 소외, 빈곤, 질병 등과 같은 복합적 문제를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노년기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데, 노년기에

41) 양옥경 외 (2011), p. 322.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우울감 등으로 이어지며 이것이 극단적으로 표출될 경우 자살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를 꾸준히 지켜오고 있다. <표 5>에서 살펴보면 20대와 30대 연령대보다 60대 이상 연령대의 자살률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5] 1999-2010년까지 자살률 추이

“출처: 통계청, <http://kosis.kr/search/search.do>.”

분석 단위	공통 범주	개입 요약(개념)
자살 시도	사회적 고립	- 신체적 질병, 경제적 궁핍, 사회적 고립의 3중고에 간혀 있음. - 자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음. - 지역사회의 외판 섬에서 살아옴. - 친한 이웃 하나 없이 살아옴. -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고독한 생활을 해옴.
	복지 사각지대	- 자살 시도 후, 병원 입원을 거부하고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지만 긴급지원 이외에는 서비스 제공을 못했음. - 노동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함. -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지 못함. - 수급자 지위에서 탈락하자 자살 시도.

	삶의 우울	• 이혼한 부인에게 극도의 배신감을 지니고 살아옴. • 하는 일마다 실패하여 우울이 늘어남. • 희망과 행복은 자기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여김. • 매사에 무력하고 즐거운 일이 없음. • 웃음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됨.
--	-------	---

[표-6] 노인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 경험 연구

“출처: 『한국사회복지학』 70(3)”

위의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노인 자살 시도 원인으로, ①사회적 고립과 ②복지 사각지대 그리고 ③삶의 우울 등을 그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이 요인들 중 특히 독거노인에게 자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넬슨Harold R. Nelson은 불안이나 신체의 노화, 관계단절과 고립으로 인한 상실감을 언급한다. 첫째, 관계의 상실, 둘째, 신체기능의 상실, 셋째, 정신의 상실, 넷째, 물리적 상실, 다섯째, 영적 상실이 그것이다.⁴²⁾ 넬슨은 상실감 체험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확실히 고령기는 노화와 병, 부상으로 신체적 기능을 비가역적으로 상실하는 경험Physical Losses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퇴직 연금 생활자가 되어 수입이 감액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상실 체험Material Losses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친구나 주변인 때로는 삶의 대부분을 함께 향유한 배우자를 잃는다는 결정적인 관계의 상실체험도Relation Losses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상실체험을 피해갈 수 없는 노화와 죽음의 공포도Mental Losse 노년기에 있다. 이렇게 고령기의 삶은 상실체험이다. 이들 중 하나의 상실체험에 기인하여 영적 상실체험Spiritual Losses이 발생된다. 그리고 이 영적 상실체험은 ‘의미의 상실Loss of Meaning’에 의해 유발된다. 우리는 누구나 관계되었던 존재를 상실할 때, 그것이 부조리일수록 그 상실감은 아픔이 되어 의미의 위기Crisis of Meaning를 일으킨다. 이 위기를 영적상실이

42) 권혁남 (2014), p. 446 재인용.

라 규정했던 벨슨에 의하면, ‘살아가는 의미의 상실’이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태’이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며’, ‘아무것도 못 믿는 고독한 상태’에서 ‘자기 존엄을 잃은 상황’이라고 설명한다.⁴³⁾

필자는 지금까지 중, 장년층과 청년, 노인층의 고독사 유형에서 공통적 특징을 ‘관계단절로부터 오는 소외, 고립’에서 도출하였다. 그리고 고립된 관계로부터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과 외로움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다시 말해서 홀로 거주하다 사망 후 발견된다는 ‘공간적 측면에서의 홀로’는 더 이상 우리나라 고독사의 상황을 대변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필자가 제시한 고독사 유형에 있어서 중, 장년층과 청년층 그리고 노년층의 고독사를 통하여 오늘날 고독사는 외로움과 관계의 단절로부터 야기되는 관계단절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고독사 개념과 대상에 있어서 확장성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첫째, 고독사의 원인을 관계의 단절과 소외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면, 고독사는 독거노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의 대상은 중, 장년층과 청년층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데 있다. 둘째, 고립된 관계로부터 느껴지는 외로움과 불안감 등이 자살로 이어진다는 것에 착안하여 이제 1인가구 형태에서 자살로 이어졌다면 고독사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미 밝혔듯이 오늘날 고독사는 단순히 ‘홀로 거주’하면서 사망한 죽음에서 공간적 측면보다는 관계의 단절과 소외로부터 야기되는 ‘관계단절 측면에서 홀로’임에 그 방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관계적 가치관을 통하여 오늘날 관계단절로부터 야기되는 고독사와 그것에서 발생하는 자살의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필자는 정책적 방향과 더불어 사회적 유대감 증대를 공감의 공동체 의식을 통하여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43) 권혁남 (2014), p. 446 재인용.

V. 결론 : 관계의 상실에서 사랑과 공감을 통한 공감의 공동체의식으로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진행된 근대 산업화 현상은 개인이 더 이상 그들의 가족이나 공동체에 의존하지 않으며, 도시 환경이 그들에게 주는 다양한 신호에 의해 움직인다. 즉 사회적 망, 구조 그리고 사회관계와 같은 가족중심 사회에서 개인중심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곧 전통 사회의 해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전통사회의 해체는 개인주의의 출현으로 이어지며 가족이나 공동체의 권리보다는 개인 권리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런데 이 자유로운 개인 권리행사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불안을 무스태커스Clark E. Moustakas는 ‘고독 불안loneliness anxiety’이라 지칭하였다. 이 고독 불안으로 인해 현대사회의 개인은 더 이상 ‘친밀한 유대감’이 없으며, 동지애나 이웃의 보호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⁴⁴⁾ 이러한 개인중심 사회의 고독이 현대인들의 인간관계의 한 단면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제는 이 고독을 불행하게도 죽음 현상에서, 그리고 자살의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죽음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불가항력적 사건이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을 잘 맞이하기는 결국 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⁴⁵⁾

그렇다면 관계단절로부터 야기되는 고독사⁴⁶⁾ 문제의 해결책은 있는가.

44) 권혁남 (2015), p. 389.

45) 이은영 (2015), pp. 111-112.

46) 중환자실이나 그 밖의 의료행위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기인된 의료집착적 행위로 가족이나 주변인조차 마지막을 함께 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을 ‘관계단절 고독사’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관계단절 고독사를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찰한 글로는, 이은영 (2018), pp. 242-272 참조.

이에 대하여 필자는 두 가지 방향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고독사에 대한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 : 고독사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 작용 안에서 발생된다. 그런 한에서 고독사 당사자의 연구 필요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고독사는 가족이나 주변인과의 관계가 거의 없거나 무연고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독사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고독사에 이르게 된 배경과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요구된다. 우리는 여전히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통해 고독사 비율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단순히 홀로 거주하다 사망하는 개념으로 고독사가 정의되기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중, 장년층과 청년층의 유형을 통하여 그 한계가 입증되었다. 우리나라 고독사는 공간적인 면에서 홀로 사망함이 더 이상 유효한 개념으로 정립될 수 없다. 따라서 고독사 개념 정립의 수정, 보완이 요구된다. ②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성 요구 : 죽음과 관련된 사회복지 실천 영역의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죽음 관련 사회복지 영역은 주로 호스피스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현대사회에서 빈곤과 관계의 단절 그리고 소외 문제로부터 야기되는 고독사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아야 할 것이다. ③고위험군에 따른 개별 전략의 필요성 : 예컨대, 1인가구 사회문화운동이 해당된다. 즉 사회적 가족 만들기, 각 지자체의 세대 묶어 연결하는 운동, 무연고자 장의봉사 등을 들 수 있다.⁴⁷⁾

이러한 정책 방향과 더불어 둘째,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감의 공동체 의식이다. 공감(empathy, Empathie⁴⁸⁾) “타인의 감정, 의견,

47) 영국에서는 지난 1월부터 ‘외로움 장관’을 신설하여 정책적으로 운영한다. 그 결과 지난 4월 영국은 ‘외로움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로움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만성질환을 앓고 배우자 없이 살아가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이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외로움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기재, 「외로움 담당장관 영국에서 생겼다」, 『동아.컴』 2018년 01월 18일.

48) 그 어원을 살펴보면, 공감은 그리스어 ‘empathia’의 em은 ‘in’, ‘into’, 그리고 ‘안’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pathos’는 ‘고통’, ‘열정’을 뜻하는데 본격적으로는 empathy는 Einfühlung에서 유래한다. 독일어 동사 ‘느끼다fühlen’는 서부독일에

주장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으로 정의되어 있는⁴⁹⁾ 공감은 타인의 기분과 감정을 자신의 경험처럼 느끼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에,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며, 따라서 타인과의 관계는 중요한 부분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의식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공감은 필수적 요인일 수 있다. 특히 공감의 관계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해한다면, 공감은 부부, 가족 내지는 집단과 같은 관계적인 단위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 근본적 방법일 수 있다. 로저스에 의하면, 공감은 첫째 고립감을 용해시킨다. 공감 받는 사람은 공감 받는 동안 자신이 세계와 인류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둘째 공감 받는 사람은 자신이 한 사람으로서 수용과 돌봄 그리고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공감은 한 사람이 정체성을 지닌 하나의 독립된 가치담지자로 존재하는데 필요한 확인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⁵⁰⁾ 그렇다면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공감하며 그것을 통해 유대관계의 증대를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공동체의식, 더 엄밀히 말하면 공감의 공동체의식이라 할 수 있다. 공감의 공동체 의식은 일반적으로 공동의식, 유대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며, 그런 한에서 개인의 고독한 감정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예컨대 공감의 공동체 의식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고통과 외로움에 대하여 타인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그 입장에 동화되어 함께 느낄 수 있다. 그런 한에서 공감의 공동체 의식을 지닌 사람은 관계적 단절과 고립으로부터

서 유래하며, 그 기본의미는 ‘(손으로)더듬다tasten’로서 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1873년 비서Robert Vischer이다. 그리고 이를 심리학에 도입해 사용한 인물은 립스이다. 그 이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립스Theodor Lipps, 1851-1914와 경험심리학자들은 이로부터 유래하는 ‘감정이입Einfühlung’이라는 말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내적이고 주관적인 체험das eigene und fremde innere subjektive Erleben’을 파악하려는 학술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은영 (2015), p. 130.

4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50) 김영란 (2004), p. 558 재인용.

오는 고독함에 내몰린 우리 이웃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적극적, 주체적으로 관여하여 정치참여활동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감의 공동체 의식이 높은 학생은 학교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대학 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또한 공동체 의식이 높은 직장인은 직장에서 역할갈등을 더 낮게 경험하고 직장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공감의 공동체 의식은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집단따돌림 등의 문제행동을 줄이며, 지역사회공동체 의식은 참여의식과 함께 타인에 대한 고통을 함께 하고자하는 참여의향을 높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현대사회에서 관계단절 그리고 소외 문제로부터 야기되는 고독한 죽음의 해법으로서 공감을 제시한다. 사회적 고립과 관계의 단절로부터 야기되는 고독사 당사자들은 심리적 위축과 자아 상실감 속에 지내고 있다. 물론 경제적,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고독한 관계의 단절 속에 내몰린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정책도 더욱 유효하게 수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런 한에서 필자는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며 그것을 공동체 의식으로 승화시켰을 때 사회 구성원 간의 유대관계는 증진 될 것으로 판단한다.

참고문헌

- 강기철 외 (2017), 「고독사 통계에 대한 한일 비교 연구」, 『일본문화연구』, 61: 5-25.
- 강석화 외 (2013), 「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4): 50.
- 고재욱 외 (2011), 「독거노인의 자살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과 사회과학』, 30: 29-48.
- 권미형 외 (2012), 「독거노인돌보미의 고독사 인식에 관한 주관성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24(6): 647-658.
- 권혁남 (2013), 「고령화 시대에 노인 고독사 문제에 대한 윤리적 반성」, 『인문과학연구논총』, 34(1): 245-277.
- (2014), 「고독사 예방 및 극복을 위한 기독교 사회윤리적 기초」, 『신학과실천』, 38: 446.
- (2015), 「부정적 감정으로서의 고독 문제 극복을 위한 교회의 지원에 관한 연구」, 『신학과실천』, 43: 389.
- 김미령 (2005), 「여성노인의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1: 90-111.
- 김보미, 유성은 (2012), 「대인관계 외상경험자들의 사회적 유대감, 정서 조절과 자살생각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3): 731-748.
- 김영란 (2004), 「Rogers 및 Kohut가 정의하는 공감 비교」, 『한국 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6(4): 558.
- 김주연 (1987), 「릴케의 생애와 작품」, 『릴케』, 8: 13-17.
- 김혜성 (2014), 「고독사:한국의 고독사에 대한 이해와 실천 방향에 대한 모색」,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75-95.
- 김화진 외 (2015), 「1인 가구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6): 119.
- 변미리 (2014), 「서울시 1인가구 대책 정책연구」, 『서울연구원』, 71-77.
- 송지준, 엄인숙 (2008), 「중년과 노인의 여가활동유형과 우울, 고독감간의 관계」, 『관광연구』, 23(1): 43-62.
- 양보람 (2013), 「한국사회의 우울증 담론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의료화와 정책화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 학위논문.
- 양옥경 외 (2011), 「독거노인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7: 322.
- 윤가현 (2013), 「고령 사회와 초고령 사회의 대응방안 : 고령자를 위한 의무교육제도」, 『한국노년학연구』, 22: 159-186.
- 윤우석 (2016),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우울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안행정논집』, 13(1): 96-97.
- 이미애 (2013), 「일본의 고독사 현상과 대책에 대한 과제」, 『일본어문학』, 63: 349-370.
- 이상명 (2016), 「고독사에 대한 법적 고찰」, 『법과정책연구』, 16(4): 59-87.
- 이은영 (2015), 「호스피스 철학의 정초로서 사랑과 공감의 의미 연구」, 『철학연구』, 51: 130.
- (2018), 「공감의 생명윤리학-연명의료결정법에서 관계단절 고독사와 전인적 돌봄을 위한 가능성 고찰」, 『윤리연구』, 121: 242-272.
- 이정희 (2018), 「노인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0(3): 95.
- 장민선 (2016), 「1인가구 지원에 관한 헌법적 고찰」, 『유럽헌법연구』, 21: 460-461.
- 장수지, 김수영 (2014), 「공동체에 대한 결속감과 고독감 : 세 유형의 공동체 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0(2): 29-54.
- 천명주 (2013), 「한나 아렌트의 고독속의 도덕적, 치유적, 정치적 기능에 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38: 385-418.
- 최인택 (2013), 「현대일본의 무연사회와 장례문화의 변용」, 『일어일문학』, 59: 445-460.
- 최현영 외 (2016), 「홀로 있음에서 고독과 외로움간의 차이 탐색」, 『청소년학연구』, 23(12): 77-103.
- 허준수 (2011), 「노인들의 고독감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 복지관 이용 노인과 비이용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3: 74-104.
- kbs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 (2018),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서울: 애플북스.
- 요시다 다이치 (2006), 김석중 역 (2009), 『유품정리인은 보았다』, 서울: 황금부엉이.
- 폴 틸리히 (2000), 차성구 역 (2006), 『존재의 용기』,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한나 아렌트 (1989), 홍원표 역 (2004), 『정신의 삶1』, 서울: 푸른 숲.

김범수, 「최근 4년간 무연고 사망자 57% 증가...고독사 대책 마련 시급」, 『조선비즈』, 2018.02.18.

이양현, 「12년째 OECD 자살률 1위..하루 44명꼴」, 『YTN』, 2017.08.03.

임웅재, 「대한민국 고독지수 78점...」, 『서울경제』, 2018.04.02.

정준호, 「홀로 맞는 죽음 5년새 78% 급증」, 『한국일보』, 2017.07.23.

하근찬, 「백골로 발견된 할머니...무관심 속 5년간 방치」, 『CBS노컷뉴스』, 2013.10.02.

한기재, 「외로움 담당장관 영국에서 생겼다」, 『동아.컴』, 2018.01.18.

“고령자 1인 가구 현황”, <http://kosis.kr/index/index.do>. (검색일: 2018.09.0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검색일: 2012.10.18.)

“서울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9차) 원자료 재분석”

<https://www.kihasa.re.kr>. (검색일: 2018.10.10.)

“서울시복지재단”, <http://www.welfare.seoul.kr/main>. (검색일: 2018.09.02.)

“서울특별시 1인가구 대책 정책연구”, <https://www.si.re.kr/node/52405>.

(검색일: 2018.09.02.)

“청년 실업률”, http://eboard.moel.go.kr/indicator/detail?menu_idx=2.

(검색일: 2018.09.10.)

“1999-2010년까지 자살률 추이”, <http://kosis.kr/search/search.do>. (검색일: 2018.09.20.)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death, and in order to examine the social backgrounds and causes of lonely death,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lonely deaths in Japan and Korea are discussed. In the process, the meaning of lonely death in Korea is considered in four different types.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causes of Korea's lonely deaths arise from the 'disconnection and alienation of relations', and it is discussed how we should approach those people who are left neglected and exposed to lonely deaths resulting from the disconnection and alienation of relations. It is also discussed what kind of ethical reflections are needed for those people in our society through empathy, love and community consciousness of based on the empathy. In other word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issue of lonely death phenomenon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disconnection and alienation of relations and to discuss it through empathy, based on community spirit of empathy.

【Keywords】 Lonely death, Disconnection and Alienation of Relations, Alienation, Empathy, Suicide in Lonely Death

논문 투고일: 2018.09.19

심사 완료일: 2018.10.19

게재 확정일: 2018.10.19.